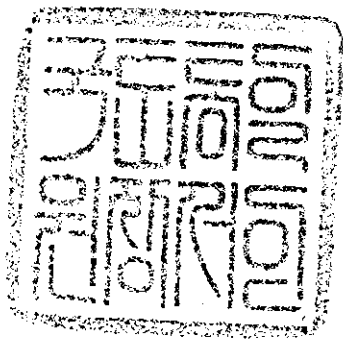


중동에 있어서의 소련의 신동향



1970. 1

국 토 통 일 원

차 례

1. 소련의 석유 「딜레마」 (RUSSIA'S OIL DILEMMA) ----- 1
2. 소련의 중동식민주의 (SOVIET M.E. COLONIALISM) ----- 8
3. 중동에 있어서의 「모스크바」의 자본주의적인 이익욕
(MOSCOW'S CAPITALIST INTERESTS IN MIDDLE
EAST) ----- 14
4. 페르시아만에 있어서의 양대국의 균형행위 (EIG -2'S
BALANCING ACT IN THE PERSIAN GULF) ----- 21
5. 소련의 중동 「딜레마」, 현상유지 혹은 전복 (RUSSIA'S
M.E. DILEMMA - STATUS QUO OR SUBVERSION) ----- 28

출처 ; 예루살렘 포스트

(The Jerusalem Post.)

1969. 10. 30 ~ 11. 4

“소련의 석유 「딜레마」”

- The Jerusalem Post, October 30, 1969, p.5 -

이미 판명된 바와같이 세계석유매장량의 5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석유는 최대의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예견되는 바이나 동서구, 일본, 인도의 반대를 그리고 아마도 자기 소유의 상당량의 많은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까지도 그 산업의 동력원은 특히 유입에 있어서 경쟁자없는 합리적 가격으로 석유공급을 확보하는데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것은 소련인들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최대의 중요한 선취권이 될 것이다. 일단 중동 석유에 대한 그들의 이권을 확보한다면 그들은 계속 잔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동으로 부터의 소련의 석유수요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비록 소련이 세계에서 둘째로 큰 석유생산국이라 하지만 (연간 7천 내지 8천%의 성장율의 생산으로서 1968년에는 3억9백만톤을 생산) 자국의 매장량만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결코 충분할 정도가 아니며 적어도 그 공급처를 발견하는데 대단한 난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68년말에는 근 55억톤선을 유지하였는바 지금은 미국의 50억톤의 확인된 석유매장량보다, 더많은 소련의 공인된 석유매장량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도처, 주로 「베네주엘라」와 중동에서 막대한 석유매장량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중동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확인된 매장량 373억톤의 약 5분의3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1968 년전반기중 중동의 원유는 제 산업국의 총원유수입량중 다음의 개략적인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91 %
네덜란드	70 %
벨지움	60 %
이탈리	59 %
영국	54 %
불란서	46 %
서독	33 %
미국	18 %

이 숫자들은 재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그 위에 국내생산을 고려에 넣지 않았으며 전체소비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 ; 미국의 경우.)

미국자신의 수요로 말하자면 미국은 국내석유산업을 보호하며 외부 공급처에 의존하게 됨을 피하려는 두가지 면에서 볼때 주로 국내생산에 의존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련도 미국과 비슷하게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 외부석유원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이 그의 자급자족정책을 포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의 수요가 오름으로서 활동적인 노력은 새로운 국내 「에너지」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였으며 그곳 「티유멘」의 새로운 유전은 1980 년까지 연간 2억 1만 내지

2억5천만톤사이의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티유멘」과 「시베리아」 어느곳에든지 난관에 봉착했다는 낙담시키는 보도들이 있다. 소련과 동구전문가들을 포함한 몇 관측통에 의하면 1980년까지는 소련의 석유수요가 연간 약 1억톤까지 국내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련의 국내석유생산의 증가와 아직도 탐색되지 않은 광대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기후와 원거리지역에서 영향받기 쉬운 난관은 아마도 수요에 지체되는 공급을 결과할 것이다. 잉여현상이 부족현상으로 역전될 순간은 아마도 1975년전 후의 일이될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소련이 더많은 석유를 수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소련이 서구에 대한 공급자로서나 혹은 다만 시장대리자로서 봉사하는에서 통상 및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이유에서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련은 경화(硬化)를 획득하고 있고 그의 「에너지」공급에 있어 상당한 량의 서구에 대한 의존을 확보하고 있다. 소련은 이미 이 방향에서 어떤 의미심장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1967년에 4천8백만톤의 원유와 유류생산품을 서구에 수출하였다. (「페르샤」만으로 부터의 서구수입의 약 21%) 그리고 1967년전쟁후 「아랍」제국의 석유금수기간에 그의 수출을 조금 증가시켰다. 이 서구시장들이 천연「가스」시장(또 주로 「파이프」선)과 함께 확고히 확립되고 있는 지금, 비록 소련이 현존하는 제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외부의 공급원을 발견해야 한다면 소련으로부터는 그들을 보류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다. 그

들 소유의 국내석유원이 국내수요를 충족치 못할때 만약에 그들이
 비록 이 자원채굴의 가격이 경화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서구에서 높은 시세로써 매매하기 위한 「루블」 석유의 주요한 의
 부원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는 소련인들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익은 비록 서구제국이 소련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배되는 석유공급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허용하는 것과는 엄청나
 게 다르기도 하지만 대외거래의 환영받는 원천으로서 중동으로부터
 「파운드」와 「달러」 석유를 획득할 수 있었던 영미가 형유하였던
 이권과 흡사한 것이 될 것이다. 소련은 석유공급에 상당한 정책
 적이유를 갖고 있다.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위기기간중
 위성제국내의 내적변화에 대한 경화된 소련의 태도의 주요인은 그
 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었다. 석유공급은 소련이 공산제
 국 상호의존을 지속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전시키며 그들의
 서방과의 경제적 유대를 많이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개의
 지배력인것 같이 생각된다. 이 정치적 이권은 현재로서는 생산품들
 을 동구와 물물교환을 위한 원료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1967년 소련은 동구에
 2천 5백만톤의 석유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동구내의 국내생산 총
 2천만톤 미만과 도처에서 들어오는 사소한 수입량에 비교가 된다.
 소련은 동구석유수요의 약 55%를 충족시켰다. 그런데 1980년
 까지에는 연간 1억 4천만톤 상당까지 성장할지도 모를 것이다.

외부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이 동구의 수요의 증가로 소련의
 소유로서는 부족하게 될때 새로운 석유원을 발견하는 것이 소련의

로서는 대단히 자극적인 또 다른 방책이다. 사실상 중동의 석유를 손에 넣기 위한 소련이 갖고있는 관심의 현재의 증거는 차기 수년간 동구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적 역할을 다할려는 소련의 욕망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지배에 대한 관심은 동구제국들로 하여금 중동석유생산자들과의 독립된 협약을 제외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협약을 하게끔 이미 권하고 있다. 예기한바 그대로 「루마니아」는 1965년 「이란」과 불물교환 거래를 체결함에 의하여 이 과정을 취하는데 있어서 그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후 많은 생산국들과의 다른 많은 협약들이 맺어졌는데 그중에는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동독(D. D. R)」과 「유고슬라비아」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론상 영토상의 접촉은 소련으로 하여금 다만 육로의 방법으로 「페르샤」만유전으로부터 석유를 끌어들이게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에즈」 운하봉쇄는 그의 동구인접국들에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동구로 직접 출하하는지 또는 「코카사스」에 공급하는지간에 수출을 위한 국내 공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페르샤」만으로부터 석유를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련으로 부터 동구로 이르는 「파이프」선외에 「이란」에서 「코카사스」간의 「파이프」선건설은 이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 「수에즈」 운하재개와 함께 특히 소련이 동구에 공급되는 석유가격인상을 요구하게 됨이 명백히 될 것임에 비추어 개별적 동구제국은 「페르샤」만내 생산제국들과 그들 자신의 협약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비록 운하통로 없이라도 몇 동구제국은 「리비아」나 혹은 「알제리아」 같은 「수에즈」 서부공급처로부터 석유를 획득하거나 「시리아」와 「레바논」의 「파이프」선 종점들로 부터 심지어는 「에집트」와 「이스라엘」 내에 건설된 「파이프」선으로 부터 지중해를 건너는 방법같은 다른 통로에 의해 만지역으로 부터 수입하기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소련이 중동의 공급자들과 동구제국 자신들이 협정을 직접 만드는 자유를 과단하게 삭감함이 없이는 동구에 대한 석유공급 독점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힘들게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있을법한 일이다. 소련은 종국적으로 이러한 억제방법을 취하는가 동구제국에 의한 독립된 구입량이 재빨리 증가하게 하든가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련이 1970년대중에 부닥치게 될 대단히 난관스러운 선택중의 한개의 예에 불과하다. 소련이 동구에 대한 석유공급의 지배를 지속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인가 혹은 제위성국들로 하여금 타생산자들로 부터 직접 더많은 석유를 사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 소련은 그 자신의 「에너지」 수요의 비례로 보아 외부의 공급자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인가 혹은 소련 자체내의 개발하기 힘든 매장량을 개발함으로써 그의 전통적인 자급자족 경제정책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는 문제이다.

한편 자급자족을 존속하기 위한 결정과 외부원으로 부터 대량의 석유취득을 포기하는 결정은 특히 소련의 접근용이한 매장량을 채굴함에 있어서 한 무거운 국내투자계획을 뒤따르게 할 것이다.

즉 경화소득의 결과로 오는 손실을 수반한 서구에 대한 판매의 감소, 그리고 동구에 대한 공급감소와 그 결과로서 생기는 정치적 지배의 쇠퇴등이 그 부산물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련의 국내 생산에 있어서 미래의 부족량의 추산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소련자신의 수요는 물론 동구의 수요를 위한 외부석유원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자 하는 결정은 소련외부에 존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간의 석유공급과 배달에 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모든 통상적 및 정치적 난관속에 소련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선택의 자유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환경속에서 소련이 팽창주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소련의 결정이 무엇이든간에 소련이 가까운 장래에 중요한 석유의 수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그것은 최근의 중동제국과 맺은 소련의 석유협정이 암시가 되는것 같다. 그러므로 여하튼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 시급한 문제는 소련이 그 지역 특히 소련자신에게 그의 편의를 부여한 「페르샤」만 주위지역으로부터 산출되는 석유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려는 수단에 관계되어 있다.

“소련의 중동식민주의”

- The Jerusalem Post, October 31, 1969, p.3 -

중동에서의 증가되는 소련의 관심의 흔적은 소련이 이 지역을 지배하며 세계의 권력정치의 한 요소로서 석유를 사용할 가능성과 의향이 있게 될지도 모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은 불안감은 과거의 소련경제정책이 정치적 야심에 의해 심히 영향을 받아왔던 요소였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동구에서의 그 증거로는 소련인들이 월등한 정치적 도구로서 석유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론상 적어도 소련은 군사적 혹은 정치적 양보에 의해 「개국」이나 혹은 그 이상의 석유생산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련은 다른 외부강대국들에 대한 석유의 정치적 영향이나 혹은 접근 그 어느쪽도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하여 「약탈자」로서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페르샤」만으로부터의 「탈라」석유공급은 주로 상환의 균형상의 영향때문에 미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NATO 동맹국들에 대한 석유의 수출을 확보하기 위한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영국으로 말하자면 「페르샤」만으로부터의 「파운드」석유는 상환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자원으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중동에 대한 의존

비록 불란서와 펙 소규모적이긴 하지만 이태리 만이 그들 자신의 화폐로 석유를 구매하는 협약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서방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규모로 중동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중동석유(「리비아」의 석유와 함께)에 대한 이 의존은 차기 10년간이상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만약 소련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소련은 석유에 접근하는 더 많은 외부세력들을 배제하고 미영불로 하여금 그들의 「달라」, 「파운드」와 「프랑」의 균형을 위한 지주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외부세력들은 그들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환경하에서 석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국이나 혹은 여러 「페르샤」만 제국들을 지배하고 타국들에게는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소련의 기도의 가능성이 존재함은 석유공급에 관세된 지역외의 국가에게도 가장 심각한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표면상의 정당성을 발전함에 있어서 소련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들은 그 후에 시작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 혹은 위성국정체의 형식을 강요하려고 할 것인가 하고 중동내의 1개국에 대하여 소련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동 지역내의 모든 다른 정부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동서간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무력에 의하여 안정을 얻고자 하는 국가들을 멀리하는 경향을 만들 것이다.

「아랍」 세계내에서의 직접적 지배를 기도한 외부세력의 시도의 실

패의 오랜 역사는 소련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의 식민주의는 중동에 있어서 영불의 다양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고취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 지역에 통털어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는한 그것은 소련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바로 범「아랍」운동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동내의 주요한 비「아랍」석유생산국인 「이란」에 있어서 직접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련의 시도는 비록 「이란」군이 소련군에 비유할바 못된다고 할지언정 국부적 저항을 일으키는 위협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또 「이란」뿐만이 아니라 「터키」와 「파키스탄」으로의 미국세력의 진출을 삼가한다는 미소의 양해사항을 파괴할 것이다.

중동에서의 소련식민주의는 이러한 미소간의 이해를 전역에 적용함으로써만 이 궁지에서 모면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련은 그가 어떤 특정국에서 이득을 얻는 가능성보다 전체 지역에서 더 많은것을 상실할 것임은 거의 확실한 것이다.

방어의 자세

석유가 서구와 일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에게도 적지 않게 중요하며 남부 아세아제국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에게는 잠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석유생산제국에 대한 소련의 지배는 모든 이들 국가들을 소련에 대해 방어적 자세로 몰아넣게 될 것을 입증한다. 그들은 소련의 지배를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즉 그들은 아마 소련에 대항할려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재보증을 추구할려고 노력할 것이다. 1955년의 「수에즈」 분쟁 이후로는 석유탐색이 서방 여러회사들간에 공급원의 다양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중요성 때문에 활발하여 졌다. 시대적 수요에 따라서 1970년대 말기까지에도 석유「에너지」의 이용할 수 있는 예비자원은 대략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석유회사만큼 많을 것이다. 석유공급의 형태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해도 만약 소련이 중동지역에서 제국주의적 행위자가 된다면 미국과 중공 양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파멸상태에 합입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동 지역석유 지배권에 의해 크게 손상입지 않은 미국은 소련의 야욕에 의하여 경종을 받는 어떤 국가에게도 당연히 보호자가 될 것이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안보체제를 창설하고자 하는 소련의 희망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수포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까닭은 중공때문이 아니라 소련때문이기 때문이다. 최종적 특성은 「레닌」혁명이 아니라 더욱 유력하고 놀랄만한 「짜르」주의(TSARISM)와 동일시 되는 소비에트 정체의 타점으로 들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의미로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소비제국에 대해 계속해서 공급보장을 어떤 압력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랍」세계내의 식민세력으로서 억지로 인기를 떨어지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특히 소련이 인접의 초대세력으로서 그의 현실적 위치에 의해 큰 영향과 잠재적 이익을 얻는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그의 비행은 어떤 시기에나 소련이 어떤 석유생산국의 점령이나 혹은 전복으로써 중동에서의 그의 장기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소련이 중동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배의 영향을 미치게 했던 동구에서 까지도 잘 확립된 소비에트지배 체제를 벗어날려고 했을 때는 어떤 위성국에 대해서도 억압적으로 행동하였다.

미국과의 타협

부문적 고찰외에 중동내제국에 대한 주요한 소비에트의 행동은 과거 몇 년동안 미국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수행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초강대국들간에 대립을 초래케 할 수도 있었다. 미국이 미소관제균형에 영향을 주는 조약체결의 절차나 초안작성도 없이 「페르샤」만의 어떤 국가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 지배권을 소련이 취득함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함은 무의미한 일이다. 직접적인 소련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련과 전쟁이나 혹은 대결을 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동 지역의 어떤 1개국 내에서만 문제가 되서는 이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차기 20년간 소련의 석유수요는 우호적 미소관제를 불가피하게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페르샤」만 지역내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소련의 행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이유로 보아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련이 곧 동지역내의 주요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범위는 아직도 간신히 그 한계를 정했을 뿐이다.

중국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소련의 동지역내의 주요세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범위는 아직도 간신히 그 한계를 정했을 뿐이다.”

중국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은 매우 희미하게 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중동에 있어서의 「모스크바」의 자본

주의적인 이익욕

- The Jerusalem Post, November 2, 1969, p.3 -

식민주의적인 모종형태의 명백한 2자택일 정책은 다소 혼란 통상협정을 통하여 중동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소련이 추구하려고 생각해온 방법이다. 소련은 이미 고객제국인 「시리아」, 「에집트」 및 현재는 「이라크」에서의 석유산업개발을 원조하는데 있어 그의 동구연접국들을 참여시켜왔다. 소련은 예를 들어 「에집트」의 면화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그들의 무기공급에 대한 답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이 노력의 결과로 소련은 보다 폭넓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에즈」만에서 (혹은 「수에즈」 운하개방과 함께 서부사막에서) 산출되는 「에집트」 석유는 정유처리를 위하여 「아덴」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데 그것은 소련으로서는 유리한 것이다. 즉 그후는 어떤 소련경제계획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에즈」 동부를 포함하는 해군에까지 사용될 수 있다.

「시리아」의 석유생산개발은 중동에 있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련은 여기에 합리적인 희망을 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가 석유특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 불행이었는데 「시리아」는 소련이 한몫끼게 될지도 몰랐던 조급한 분쟁에 이르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지

역에서 뚜렷하게 제일큰 의의를 갖고 있는 통상협정은 소련과 「이란」간의 협정이다. 1965년 미국은 「이란」이 이미 군사적 혹은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1개의 개발국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소련은 특징적으로 정확한 시기를 맞추어 침투하였다. 그 결과가 1966년 1월의 협약이었다. 이 협약상의 재래의 강철공장과 북부 「이란」으로부터 「코카사스」에 까지 이르는 「파이프」선의 건설장비원조의 보답으로 1970년초에 6억불이 상에 상당한 천연 「가스」를 소련에 공급하게 되었다.

최초의 모험

1963년의 「아프카니스탄」과의 천연 「가스」 협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약의 조인은 「에너지」공급원을 구함에 있어서 공산세계외부에서의 소련의 최초의 모험임을 나타내고 있다. 약 1억천만불 상당의 무기공급을 위한 1967년 2월의 소-「이란」조약체결과와 더불어 전기조약체결은 필연적으로 「이란」 자신으로서는 정치적 관련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사실상 이들 조약들중 그 어느것도 「이란」의 외교정책에 어떤 근본적인 전환의 전조가 된것 같지는 않다. 이 소-「이란」천연 「가스」조약의 정도는 「이란」이 아직 서방과 관계하고 있는 통상적 제연체에 비교해 보면 사소한 것이다. 즉 연간 6천 6백만불 상당의 천연 「가스」의 소련에 대한 수출과 서방 석유차관단과 1969년 5월에 체결한 근자의 연간 10억불 상당의 조약간에는 그 어떤 공약수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소련무기공급의 부족분과 보충을 위한 「이란」의 소련에 대한 계속적인 의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위험은 「이란」의 소련에 대한 최신형무기 공급의존 불필요로 감소되었다. 여하튼 그것은 「이란」국내의 「에너지」분포의 본보기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계속적 사용을 통한 대가를 지불해야할 「파이프」선건설에 뒤따르는 어떤 의존의 부담을 소련이 갖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개의 「파이프」선건설은 동일한 방법을 통한 부가적인 「페르샤」만 「에너지」공급수송에 병행하여 또 다른 「파이프」선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건설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

정치적 이익

「이란」의 경우는 소련이 중동에 있어 「에너지」자원을 포함하는 통상협정으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난관이 있음을 설명하여 준다. 전술한 것은 역시 소련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중동제국에서의 변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비록 소련이 「페르샤」만지역에서의 급진적 제정부수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직접적 간섭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급진적인 국내정치세력은 소련없이도 몇 석유생산국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석유생산과 협존하는 분배의 권익을 손에 넣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것 같다. 사실상 어떤 이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소련의 성공은 아마도 얼마쯤은 일부분의 생산자들로부터 그

들의 확보된 제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수출을 보증하는 능력과 이를 시행할 솔직한 심경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결국 석유는 「페르샤」만지역내 거의 모든 국가의 한 주요한 자원인 것이다. 요컨대 이의 생산과 수출은 1968년 이들 국가를 위한 외국원조에서 30억불이상의 이득을 사용케 하였다. 그리고 장래에도 더욱 많은 이득을 볼것은 확실한 일이다. 최대한도의 정부채입은 한 석유생산국에서의 힘이되며 사실상 어떤 정부의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을 통한 안정을 기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증적인 공급

서방내 구매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보증하기 위한 가능성은 1967년 「이스라엘」 지지를 비난받은 미·영과 기타 제국에 대한 「아랍」의 석유비매동맹의 실패이후 제생산국에게는 특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실패는 현재 무기로서의 「아랍」 석유금수채를 제거한 석유구매자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양측에 명백히 밝혀주었다. 어떤 경우에도 제석유회사는 수년간 「아랍」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아닌 제국내에서 석유발굴을 집중적으로 하여 왔다. 이런 정치적인 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며 서방석유시장의 영구한 대배당주를 획득하기 위하여 어떤 생산국들(특히 「이란」)편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

소련은 비록 그들의 정체들이 이념적으로 상이할지라도 생산제국을 재보증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즉 그의 석유

통상에 관한 의도는 변치 않고 있다. 과거 11년간 이상이나, 즉 「바그다드」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은 상당한 기간중까지도 「이라크」에서 서방으로의 계속적인 석유수출 등이나, 어떤 중동국가로부터 서방내 여러 시장으로의 석유수출에서의 접촉이 동 지역내 제국과의 소련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소련이 잘 알아 차리게 하였다. 「카루툼」 「아랍」 정상회담이 몇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금지를 결의하였던 1967년 9월에 소련은 그 결의를 진실로 찬양하였다. 대체로 보아 소련은 서방석유회사들의 국유화 주장을 삼가하고 있다. 소련은 그 자신이 통상적으로 유리한 견지에서 석유생산제국과 서방석유회사들 간의 관계를 호전시킬려는 그의 절제적 태도를 합리화 시킬려고 노력하기 까지 하였다. 소련의 한 석유전문가에 의하면 소련의 개발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중동제국의 능력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적당한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억불을 가져다 주는 석유세입에 관련된 「아랍」 제국과 소련이 대립될수는 없는 것이다.

소련의 동태여하에 달려있는 이 모든 제한과 함께 「페르샤」만 내 석유에 대한 소련정책의 진전은 아직은 통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중동석유관계에 관한 우려는 다만 소련이 그네들이 필요한 비교적 제한된 이 석유량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그러나 중동내의 오늘날의 민족주의적 풍토위에서 비록 소련이 제석유생산

국으로부터 이권적 조건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매자들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기에는 어렵지마는 어떻게 될지라도 지불금액이 주요한 문제로 애를 먹이지는 않을 것이다.

「페르샤」만 석유에 있어서 소련의 통상관계의 추구가 서방석유 회사들로 하여금 동 지역에서의 공급처 획득이나 혹은 그들의 장차의 생산확대를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법도 않은 일이다. 중동석유의 채굴 수송 구매등에 대한 소련의 제한된 개입은 산업에서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만들것 같다. 서방석유 회사들 식으로 석유자원 채굴권을 갖는 것은 소련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소련의 출현역할은 구매행위자로서만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유조선에 속박된 수백만의

「후불」과 함께 아마도 소련은 그의 투자를 보호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소련의 시장활동은 서방상선들이 그들 자신의 잠수함대의 보호 감시하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것 같이 서방의 감시하에서 행해질 것이다.

규정에 따른 행동

소련은 자진해서 석유경쟁의 확실한 규정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가령 「수에즈」 운하 봉쇄이래 소련은 그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부 다비」에 있는 영국석유회사로부터 원유를 교환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그의 제한된 량의 석유를 수송할 것을 소련은 보도하였다. 이 진전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

망되던 불안은 적어도 시기상조이다. 만일 서방제국이 소련의 수송과 구매시설에 대한 부당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중요 석유회사와 각 국내석유협회의 유조선박회사「건립」추진 노력면에서 보아 일어나지는 않겠지마는 이러한 협력은 모든 서방제국이 석유산업에 있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소련의 석유정책의 상대적 보수주의경향은 중동석유에 있어서의 관계가 어떤 국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장기간 압력의 표현보다 단기적 「마키아벨리」주의의 보다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비록 1970년말까지 소련이 한 우호적인 기초위에 서방과의 「페르샤」만 석유생산분배가 허용될 수 있는 통상협정의 전개가능은 있는 것이다. 중동석유와 성장하는 통상관계는 소련을 궁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수십년간 중동에서의 서방석유회사들의 지배적 위치는 특히 미국에 대해 통상사용된 한 사실상의 선전표적을 소련에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이 버려야 하게될 보잘것 없는 이익에 불과하다. 소련이 더욱 깊이 끼어들게 될때 그것은 서방석유 회사들에 의한 생산제국의 개발에 대조된 표면화한 이념적 입장을 취하게 될 난관이 증대되는 것이다.

[페르샤] 만에 있어서의 양대국의 균형행위

- The Jerusalem Post, November 4, 1969, p.3 -

지난주 런던의 전술학회에 의해서 발행된 중동에서의 소련의 딜레마, 석유 및 페르샤만—이라는 그의 조사서에서 로버트·헌터씨는 소련과 미국은 페르샤만에서의 상호제한에 동의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여섯번째이며 동시에 마지막 게재분이다. 헌터씨는 현재 이 학회의 미국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X X X

과거 200년동안 영국은 첫째 인도제국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페르샤에 이르는 통로 및 제정러시아와의 경쟁에서의 군사적 이점으로서 페르샤만을 사용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까지도 페르샤만지역에 대한 어떠한 외국의 통제도 막아내는 것을 영국은 원칙적인 정책으로 삼아 왔다.

1903년, 영 외상 렌즈다운경은 "우리는 어떠한 국가이든간에 페르샤만에 해군기지나 군항을 개설하는 것을 영국의 이익에 대한 중대위협으로 간주하고 중시할 것이며 우리의 뜻대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항할 것이다." 라고 영상원 및 제정러시아에 대해 경고한바 있었다.

소련의 순양함 한척과 극동함대의 두척의 호송함이 이라크의 움마·까쓰르항에 잠깐 들린 것은 1968년 5월이었다.

그 이후 소련해군은 움무·까스르항의 시설 사용권을 얻었고 앞으로 여기에 주둔한 소련해군은 페르샤만의 하나의 특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 페르샤만은 동으로 이르는 소련의 긴 공급연결선에 일역을 담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페르샤만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게 될지는 명백치 않다. 이유는 동으로 항해하는 소련의 선박들은,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든가 혹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든가를 막론하고 연료 및 그밖의 필수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페르샤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덴항에 기항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도양에 기지를 둔 소련함대에게는 페르샤만이 임시적으로 쓰일 기항지로서 제공해 줄수는 있어도 그것이 한 함대를 유지해 나가는 데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지는 못하며 해상지원의 발달이나 아덴항과 같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항구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보다 더 적합한 타협인 페르샤만은 항로가 이란을 통해서만 가능하든가 혹은 석유가 페르샤만에서 직접 동부의 소련 고객에게 수송될때에 한하여 소련의 남부아시아와의 무역의 해로로서의 이용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란과 바하레인과 같은 최소한도 한개의 중간국가가 그 시설사용에 동의를 한다면 공로로써의 페르샤만은 남부아시아와 소련사이의 앞으로 더욱 발전할 상업상의 요로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은 소련의 군사력이나 해군의 진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서의 서방측의 이익을 특별히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나라나 페르샤만에 인접해 있는 국가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보다 더 광범위한 고려는 별도로 하고라도 페르샤만에서 잠재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세력을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소련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지역에다가 해군이나 그 밖의 군사력을 영구히 혹은 필요시에만 배치하려 할지도 모른다.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빠른 동원이 가능하고 지역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영도력과 합법적인 지방정치세력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면 소련의 군사력과 해군력의 일시적 사용은 그 지역의 국내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비록 소련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일반적인 이익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와 같은 정책은 경찰행위와 점유사이의 빈약한 차이때문에 제한이 받드시 따라야만 한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 미국의 판심을 야기시킨다면 소련의 중재에 따르는 위험은 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은 소련과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두나라가 페르샤만을 해군의 경쟁장이나 군사력의 전시를 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서로 삼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강대국사이의 알력의 위험성은 고사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페르샤만에서의 외국군대의 주둔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두 문제사이의 불안한 관계때문에 더욱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영국의 철수후, 1959년 이래 통치자와의 협정에 의해서 바하레인에 주둔해온 중동군 및 사령관의 기함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지방토후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페르샤만에 인접해 있지 않는 국가가 이 지역의 문제에 간섭해 오는데 심한 적의를 품고 있다. 토후들은 안정을 위해서 군대가 1차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가까이 주둔해 있는 것은 바라고 있지만 군대가 영구히 상륙해 있다던가 페르샤만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 영국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 ”

페르샤만에 있어서 외국세력의 중재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이상적 방법은 군사력이나 해군력을 치안유지, 혹은 단순한 시위효과를 위해 이용하는것 뿐만아니라 영국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정부들과 일련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이 1971년말까지 군사적으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확실히 서두른 감이 있고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반대를 받았는데 특히 페르샤만에 근접해 있는 토후들로부터의 반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비록 영국의 외국에 대한 간섭내지는 관련능력이 약해 졌음을 시사하는, 해외주둔지로부터의 철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앞으로 몇년간은 더 영국의 주둔이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국의 철수결정은 페르샤만에서의 많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정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순조롭고 이제 이러한 철수결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영국이 철수결정을 일시적으로 변경지킨다면, 영국이 지금까지 피해온 정치적 결정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랍민족주의의 과녁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만일 소련과 미국이 사태를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페르샤만에서의 정치적 발전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삼가하고 이 지역을 중립지역으로 취급하며 유엔군의 결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진북활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조장하는 동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에 아랍에 이스라엘 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이 지역에 개입해 들어 오는 것은 이들 강대국들을 그들이 원치않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갈 위험이 크다. 암암리에 든간에 혹은 공식적으로 알려졌든지간에 페르샤만에 대한 강대국들의 협정은, 소련이 이 지역, 특히 중공과 이념분쟁으로 맞서고 있는 페르샤 이북의 국가에게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치우쳐서 그 이익을 추구해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협정은 미·소가 이 지역의 주요국가 특히 이란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이익을 분할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페르샤만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상호 이해의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이란국왕 팔레비·사하의 현재정책은 그의 부왕 레자·사하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소련의 영향력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고 이란영토에 대한 과거 제정로시아시대의

생각을 소련이 가지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도록 해 줄 자신이 이란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다.

근래 몇해동안에 이란에서의 OENTO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테헤란정부가 소련의 한정된 이익이라고 믿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독자적인 수습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테헤란정부는 투데흐당과 소련으로 부터의 공산주의자의 선전방송의 충들을 무시할 만큼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소련의 관련과 간섭을 한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를 유지해 가는데 신경을 써왔다.

팔 레비·사하의 왕위계승으로 이란이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구축되어온 미·소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이는 큰 잘못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체내의 가능성은 양국의 세력한계를 규정 한 미·소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련은 이러한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왔다.

더욱이 소련은 서방측의 봉쇄정책을 극복하고 자국의 안전과 남으로 국경을 접한 국가에서의 이익에 관한 상호만족할만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련이 이란이나 페르샤만을 지배할 야욕을 보인 다거나 또는 이란과 페르샤만을 소련이 동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야심을 들어낸다면 이러한 평가는 다시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국의 철수결정은 페르샤만에서의 많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정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순조롭고 이제 이러한 철수결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영국이 철수결정을 일시적으로 변경시킨다면, 영국이 지금까지 피해온 정치적 결정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랍민족주의의 과벽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만일 소련과 미국이 사태를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페르샤만에서의 정치적 발전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삼가하고 이 지역을 중립지역으로 취급하며 유엔군의 결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전복활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조장하는 동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에 아랍에 이스라엘 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이 지역에 개입해 들어 오는 것은 이들 강대국들을 그들이 원치않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갈 위험이 크다. 암암리에 든간에 혹은 공식적으로 알려졌든지간에 페르샤만에 대한 강대국들의 협정은, 소련이 이 지역, 특히 중공과 이념분쟁으로 맞서고 있는 페르샤 이북의 국가에게 정치적 안건을 지원하는데 치우쳐서 그 이익을 추구해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협정은 미·소가 이 지역의 주요국가 특히 이란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이익을 분할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페르샤만지역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상호 이해의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이란국왕 팔레비·사하의 현재정책은 그의 부왕 레자·사하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소련의 영향력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고 이란영토에 대한 과거 제정로시아시대의

생각을 소련이 가지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도록 해 줄 자신이 이란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수립되고 있다.

근래 몇해동안에 이란에서의 OENTO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테헤란정부가 소련의 한정된 이익이라고 믿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독자적인 수습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테헤란정부는 투데흐당과 소련으로 부터의 공산주의자의 선전방송의 충동을 무시할 만큼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소련의 관련과 간섭을 한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를 유지해 가는데 신경을 써왔다.

팔 레비·사하의 왕위계승으로 이란이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구축되어온 미·소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 이는 큰 잘못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체내의 가능성은 양국의 세력한계를 규정 한 미·소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련은 이러한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왔다.

더욱이 소련은 서방측의 봉쇄정책을 극복하고 자국의 안전과 남으로 국경을 접한 국가에서의 이익에 관한 상호만족할만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소련이 이란이나 페르샤만을 지배할 야욕을 보인 다거나 또는 이란과 페르샤만을 소련이 동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야심을 들어본다면 이러한 평가는 다시 바뀌어 질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련이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대단한 개입으로 생겨날 어려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중동 「딜레마」 - 현상유지 혹은 전복

- The Jerusalem Post, November 3, 1969, p.3 -

“소련은 이제 중동에 있어서 점차 자라고 있는 자국의 세력 및 그 존재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그들이 걸머질 책임만큼 상당한 지배력을 이 지역에서 행사해온 것도 실은 아닌 것이다. 「로버트·헌터」씨는 전략학회에 의해 간행된 그의 조사서의 다섯번째 게재에서 소련의 이 「딜레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소련이 페르시아만의 석유상업기지에 더욱 관련을 맺어감에 따라 소련은 서방 석유회사의 석유공급중지에 대한 종래의 태도를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다. 석유의 생산, 수송, 판매에 이르는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련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자기들의 전복활동이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으로 인해서 얻는 것만큼 잃고 있으며 언젠가는 꼭 서방측으로 석유를 공급할 것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소련이 계속 이 지역에 침투해 들어간다면 중·소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이라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급진적인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소위 반동적 석유생산국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석유생산국에서의 전복 활동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 선택해야 될 것인데 만약 소련이 후자를 택한다면 석유생산국에서는 그 생산이 중단되

고 서구국가들은 어쩌면 영구적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적게 받는 공급국에게 석유의 공급을 의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첫번째 방법이 채택된다면 중공이 소련을 반동이라고 선전효과에 이용할 위험이 따르고 또한 중공은 소련을 대신하여 급진주의의 지원자 및 혁명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애쓸 것이다. 또한 소련도 이에 못지 않게 중공에 의해 고무되고 있는 전복활동에 대항하여 반동적인 국가들의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련이 페르샤만 지역의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증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 지방의 국가 특히 「이란」은 이 지역의 상황이나 사태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소련이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르샤만의 분열속에 뛰어 들므로 해서 소련이 행사한 지배력 이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전복행위의 수출”

중동자체내에서도 페르샤만에 전복활동을 기도할 가능성은 있다. 즉 「에집트」나 「이락」과 같은 인접국가나 「피집령 지대 아라비아만 해방전선」(전 「도환」해방전선)같이 남「에멘」과 중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복활동의 성공도는 각 지방의 상황에 얼마쯤은 달려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착단체가 자기들의 토후에 반대하고 있는

불만에 차있는 부족민들을 격려해서 전복활동에 끌어 들일 수는 있어도 문맹율이 높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사상을 주입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복활동이 수출될 위험성은 석유의 생산으로 개발되어가는 발전도상국가에서 더 심각하다.

「바하레인」은 물론 「아부디비」에서 까지도 국민해방전선의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바하레인」에는 페르샤어를 쓰는 인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교육정도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편인데 이 두가지 사실은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벌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에집트」가 소강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불안을 야기시키지는 않고 있다. 「에집트」의 이러한 태도는 첫째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피해 둘째로는 「수에즈」운하가 매년 벌어들이고 있었던 세일의 상실, 「라비아」 「퀘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상해 주고 있는 원조에 대한 의존, 세계 비록 그것이 부분적이며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넛셀」주의의 퇴색을 말해 주고 있다.

어쩌면 소련의 압력으로 페르샤만지역에 대한 「에집트」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에즈」운하가 봉쇄되어 있는 한 확실치 않다.

만일 지금까지 취해온 「에집트」의 태도가 일시적인 자제였음이 드러나고 「넛셀」이 페르샤만에서의 야심을 다시 불러 일으킨다면 「넛셀」은 사태가 지역의 안정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의해 크게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1971년말에 영국이 철수함으로써 더 이상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바하레인」 「카타르」 그 밖에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는 일곱개의 토후국가들이 연방체제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크게 영국으로 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나셀」 대통령이 그 준비기간동안에 정치적으로 조용히 있지 않았다면 이 단체는 결국 사산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1968년 3월말부터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아랍」 통치태수연합이 견고히 되기는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 준비회의에서의 의견교환은 완전한 정치적인 연합을 이룩하지는 못했어도 방어를 위한 관계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랍」 통치태수연합 (U. A. E. = UNION OF ARAB EMIRATES) 이 각 토후국가들의 상이한 견해를 조정할 만큼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다. 태수통치관할지역은 굳건한 정부로 도약할만한 효과적 통치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U. A. E. 의 회담이 진척되어 나가는 것은 모든 「아랍」 국가들이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으나 다만 「시리아」만이 즉각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소련은 영국이 아직도 제국주의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 그것을 전적으로 반대할 의사도, 또 소련 자기들의 다른 해결방안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U. A. E. 에 있어서의 소련의 이익은 특히 「이란」 과의 관계에서 매우 심각한데 이란은 「바하레인」 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요구를 해왔고 페르샤만에서의 앞으로의 정치와 안전에 지배적인 역

함을 담당할 것을 공공연히 원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나트셀」 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페르샤만에서 「이란」이 정치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란」은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강대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소련은 「이란」과 같이 비교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의해서 이룩해진 이 지역의 안정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련하도록 할지 모르겠다.

「이란」은 야심과 또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소련이나 타지방세력을 끌어 들이려 않고 있다. 또한 이란은 자기들이 페르샤만에서의 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나갈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어떤 외국세력개입도 이를 원치 않고 있다. 영국이 보호적인 입장에서 지배해 왔던 「퀘이트」에 대해 국왕 「사하」는 침략적 야욕을 포기한 듯 하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1968년말의 「이라크」 방문시와 1969년 봄의 「이란」-「이라크」위기때에도 표명되었다. 부분적이거나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아랍」권내의 보수적인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란」국민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라크」과의 「샤트·알·아랍」강 분쟁때의 「이란」의 태도를 보면 외부세력의 간섭만 없다면은 군사적 위력행위로서 페르샤만을

지배할 능력이 있다는 시위를 "위력의교"를 통해서 해보려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란」과 「이라크」간의 불안한 관계가 한 예가 되는 것처럼 이도 또 소련에 대한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사이의 관계악화는 소련자신에도 한 특수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소련자체내에서의 「쿠르트」소수민족문제에 연결될 수 있는 「이라크」에 있어서의 「쿠르트」전쟁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소련정부에 대한 위험은 「이란」과 「이라크」사이의 분쟁이 소련으로 하여금 「바그다드」의 예상치 못했던 성분의 정부에 대한 지지와 「사하」국왕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어느쪽의 한편을 조만간 택하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이겠다. 특히 「이라크」이 지지하는 전복행위의 위험이 점차 페르샤만의 남부나 「퀘이트」에 까지 만연되어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러한 선택은 꼭 고민꺼리일 것이다. 이것은 또 소련이 그의 남부에 있는 인접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사실과 계속 「아랍」세계에 소련이 개입해 보겠다는 사실간의 일치에서 오는 자연스런 결과인지도 모른다.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키프러스」에 있어서 미국이 당한 것과 같은 한 강대국의 어떤 지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한 대가인지도 모를 전형적인 「딜레마」의 일종이다.

이것은 페르샤만에 있어서의 「이란」의 장래역할을 복잡하게 만듦 「이라크」과의 단 한가지의 관계는 아니다. 「사하」국왕은 이 점만은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이란」의 「바하레인」에 대한 영

토적인 주장이 페르샤만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란」의 국가적인 위신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U.A.E에 「바하레인」이 가입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8년 2월에 국왕 「사하」는, 「이란」 주장에 반대하는 「바하레인」을 지지한다는 「파이잘」왕의 결정이 내려지자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공식방문을 취소했다. 아마도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 때문에, 양 국왕은 연말에 페르샤만 해상에 있어서의 문제되어 오던 「메디안」신 경제분쟁 해결에 논의의 의의관계를 호소했고 해결에 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1월에 있었던 회합에서는 이 지역의 정치적인 장래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의 합의를 보았는지 명백치 않았다. 1971년에 영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왕국과 「이란」간의 오래된 반목경쟁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특히 U.A.E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혹은 9개 회원국가들중의 어느 하나에서라도 좌경화된 혁명이 일어난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의 국경선을 확장하려고 노릴 것이고 이런 행위는 기필코 「이란」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따를 소련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일면에 있어서 그의 「이라크」과 통일 「아랍」공화국과의 관계로 보아 그네들이 페르샤만의 안정을 지지하든지 혹은 파괴하든지 어떤 방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일언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면에 있어서는 영국이 철수한 후의 어떠한 방법으로서든

기간에 최대규모의 외교적인, 물질적인 또 「이란」 해군을 강화하기 위한 군함종을 포함한 군사적인 지원을 「이란」에 함으로써 「이란」의 페르샤만 안정유지를 적극 도와 줄수도 있다. 페르샤만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내적인 폭발요소를 조종할 수 있는 소련의 능력은, 만약에 소련이 직접적으로 지역적인 일부를 점유 (즉 이 한 두 나라가 만 세력에 의해 점유당하는 것을 소련이 막아 주는 것 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란 꼭 제한된 것이 될 것이다.

적극적 무역이나 외교적인 관계에 부수된 가장 명백한 방법으로선, 페르샤만에 소련의 군대나 해군력을 비치하는 형식이겠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선, 석유문제와는 국부적으로 관련된 단 하나의 문제로서의 한 열쇠와 같은 요소에 의존되어 질 것이다. : 소련의 확장활동의 계속을 위한 군기지로서의 페르샤만의 소련에 대한 잠재가치겠다.

